

“또 접영 100m 출전” 황선우 “한국신기록 못땀 아쉬움에”

수영연맹으로부터 포상금 2000만원 받아... 세계선수권 후 휴식 기간에도 평일에는 훈련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19·강원도청)의 욕심은 끝이 없다.

지난 6월말 막을 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수영의 새 역사를 쓴 황선우는 대회 후 휴가 기간에도 운동을 놓지 않았다.

0.03초 차이로 한국기록 경신을 아쉽게 놓친 기억이 있어 접영 100m에도 또 도전장을 던진다.

황선우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2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 및 포상금 전달식에서 세계선수권 은메달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47의 새 한국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은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경영 선수의 세계선수권 입상은 2011년 상하이 대회 박태환의 자유형 400m 금메달 이후 11년 만이었다.

행사 후 가진 인터뷰에 나선 황선우는 “열심히 훈련한 결과가 세계선수권에서 나와 뜻깊었다. 수영연맹 포상금을 받아 기분이 좋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귀국 후 황선우는 약 한 달 동안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운동을 놓지는 않았다.

황선우는 “3~4주 정도 휴가 기간이었지만, 평일에는 훈련을 했다. 계속 된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운동하면서 지냈다”며 “주말에는 꼭 쉬었다. 친구들과 만나 놀러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1박2일 여행도 다녀왔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인천선수촌에 입촌해 다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 황선우는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다음달 12~17일 전북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열리는 제41회 대동강배 전국수영대회에 출전한다.

황선우는 자유형 50m와 접영 100m에 출전한다. 모두 주종목은 아니다. 황선우의 주종목은 자유형 200m다.

황선우가 국내 대회에서 접영 종목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열린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도 접영 100m에 나서 우승했다. 당시 2020년 11월 양재훈이 세운 52초 33의 한국기록에 단 0.03초 뒤진 52초 36을 기록했다.

“자유형 200m를 국내 대회에서 뛰기는 무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은메달리스트 황선우가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열린 2022 제19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 해단식 및 포상금 전달식을 마치고 인터뷰하고 있다.

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황선우는 “자유형 50m는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접영 100m에 출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0.03초 차이로 한국기록을 경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출전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호주 전지훈련을 효과를 톡톡히 본 황선우는 “호주 전지훈련 덕분에 자유형 200m 한국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고, 계영 400m와 800m, 혼성 계영에서도 한국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호주 전지훈련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우는 8월 대동강배, 10월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12월에는 쇼트코스(25m)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선다. 황선우는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2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의 메이저대회 첫 메달이었다.

황선우는 “오는 12월 열리는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또 포디움에 올라가고 싶다. 지난해 났던 우승이라는 결과를 또 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광파르’

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새만금·군산시 일원서

군산시는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새만금과 군산시 일원에서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해양스포츠 경기와 해양 체험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축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제전은 바다에서 희망을! 군산에서 미래를! 을 슬로건으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군산시, 대한체육회가 행정지원체, 한국해양소년단이 주관한다.

공식행사는 비응항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비응도 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수중·핀수영, 철인3종경기, 바다수영, 한국해양소년단 주관의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해양어

드벤처, 동력·무동력 수상스포츠 체험 등이 진행되고 새만금오토캠핑장(아미도)에서는 요트와 비치발리볼, 은파호수공원(제1주차장)에서는 카누와 체험행사가 급강하 구룡 일원에서는 조정 경기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개최되는 기간에 군산을 방문하는 모든 분이 해양스포츠를 맘껏 즐기시고 군산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가실 수 있도록 남은기간 제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식은 8월 12일 오후 7시에 비응항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폐회식은 15일 오후 5시 비응공원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탁구 신유빈, 3개월 만에 복귀전... 내달 튀니지 개최 WTT 컨터너 출전

한국 여자탁구 간판 신유빈(18·대한항공)이 3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른다.

신유빈의 소속사 매니저먼트GNS는 27일 “신유빈이 다음달 1일부터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리는 2022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터너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손목 수



술 후 첫 대회 출전이다.

신유빈은 지난해 11월 세계탁구선수권에서 오른 손목 피로골절 부상으로 기권했다. 이후 재활을 거쳐 지난 5월 WTT 피더 시리즈에서 복귀, 여자 단식 4강까지 올랐다.

그러나 다시 손목 부위 통증을 느꼈고 정밀검진에서 또 피로골절이 발견되면서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다행히 수술 경과도 좋고 회복도 빠르다. /뉴시스

이대호 은퇴투어, 9개 구단 일정 확정

오늘 잠실 두산전부터 9월 22일 잠실 LG전까지 이어져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조선의 4번타자 이대호(40·롯데 자이언츠)의 은퇴투어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롯데를 제외한 9개 구단이 진행할 이대호의 은퇴투어 일정을 공개했다.

타구단 은퇴투어의 시작은 알려진대로 28일 잠실 두산 베이스전부터다. 두산은 지난 19일 이대호 은퇴투어 내용을 공개했다.

두산은 이대호의 은퇴투어 기념 선물로 이전 달항아리를 마련했다. 달항아리에는 이대호의 좌우명인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 이대호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증정한다.

아울러 양 팀 선수단은 잠실야구장과 롯데 엠블럼 및 이대호의 애칭 ‘빅보이’ 테마 은퇴 기념 패치를 모자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어 8월 13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 8월 23일 창원 NC 다이노스전, 8월 28일 인천 SSG 랜더스전, 8월 31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 9월 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 9월 18일 수원 KT 위즈전, 9월 20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 9월 22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 이대호의 은퇴투어가 이어진다.

은퇴투어의 대미는 홈경기에서 열리는 은퇴식이 장식하게 마련이다. 이대호의 은퇴식은 롯데의 올해 마지막 홈 경기에서 펼쳐진 가능성이 크다.

롯데 관계자는 “정규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이대호의 은퇴식을 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잔



여 경기 일정이 나오지 않아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잔여 경기 일정을 살펴보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O리그 최고의 타자로 활약하는 한편 대표팀 중심타선에서 맹활약을 펼친 이대호는 올 시즌 후 은퇴를 예고했다. KBO와 10개 구단은 지난 3월 그간의 공로를 존중해 이대호의 은퇴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구단이 참가하는 은퇴 투어는 2017년 ‘국민 타자’ 이승엽 이후 두 번째다.

이대호의 첫 은퇴투어는 그의 마지막 올스타전에서 진행됐다. KBO는 지난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클리닝 타임 때 이대호의 은퇴투어를 열고 현역 시절 모습이 일러스트로 그려진 액자를 선물했다. /뉴시스

주최/주관 E-UM 음악협회

후원

김정연 | 바이올린

송지원 | 바이올린

정진희 | 바이올린

나재원 | 플루트

서수민 | 비올라

이수민 | 비올라

최정은 | 첼로

이민영 | 피아노

최정우 | 첼로

플리

전주시민을 위한 힐링콘서트

2022 07.28 목 7:30 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기획 이윤정 문의 063.223.5323 티켓 전석 3만원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룸' 검색 ▶ 채널추가 ▶ 1:1문의